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 탄생 90주년 백남준아트센터 2022년 주요 전시 계획 발표		
문의	취재 : 한누리 학예연구사 (t.031-201-8545 m.010-3478-122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2.1.11	쪽수	총 10매

백남준 탄생 90주년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 ▶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대체 불가능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함께 즐기고자
- ▶ ‘다정한 기술, 백남준답게’를 새 비전으로
- ▶ ‘환대하고, 다가가고, 뛰어넘고’를 핵심 가치로 설정
- ▶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라는 선언 아래 다양한 전시와 페스티벌 개최
- ▶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2022.1.29.)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1월 11일(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2022년의 전시 계획과 주요 사업을 발표하였다.

오늘 나는 왜 내가 쇠베르크에게 관심을 보였는지 생각해본다. 그가 가장 극단적인 아방가르드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다면 왜 그의 ‘극단성’에 관심을 보였을까? 나의 몽골 유전자 때문이다. 몽골... 선사시대에 우랄 알타이 쪽의 사냥꾼들은 말을 타고 시베리아에서 페루, 한국, 네팔, 라플란드까지 [...] 그들은 멀리 여행을 떠나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제나 더 먼 곳을 보러 떠나야만 했다. (백남준,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1977)

한 작가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아방가르드 기상과 “백남준이 한다면”이라는 상상력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백남준은 1977년 마흔다섯 번째 생일을 앞두고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라는 제목의 글과 음반을 발표한 바 있다. 백남준이 난 지 아흔 번째가 된 올해 백남준아트센터는 이 선언을 되살리면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기획을 준비 중이다. 기술과 예술과 사람을 대하는 백남준의 다정한 태도를 환기하며, 백남준아트센터를 찾는 이들을 더욱 환대하고 찾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5대 목표

- 심층 학예연구를 바탕으로 전위적인 전시 기획
- 공생과 공유의 가치를 나누고 즐기는 페스티벌 기획
- 소장품, 아카이브, 학술연구 성과의 온라인 접근성 제고
- 국내외 작가 및 기관과의 협업 경로와 방식 다각화
- 대중문화 예술에 열려 있는 미술관

백남준 탄생 90주년은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로 포문을 연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물리적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전시와 열람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해 왔다. 2021년 스마트 미술관 사업을 통해 구축한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웹 환경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백남준의 기일인 2022년 1월 29일(토) 0시에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어서 3월과 7월에는 백남준의 끝없는 예술적 도전을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의 특별전을 개최하며, 백남준의 생일인 7월 20일에는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를 시작한다.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 마크 패츠펠, <Chicken II 02>에 사인하는 백남준,
1987, 종이에 흑백 프린트, 19x25cm,
백남준아트센터 마크 패츠펠 아카이브 컬렉션.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는 1977년 백남준이 발표한 LP음반의 제목으로, 여기에는 쇤베르크의 음악을 4배로 천천히 재생한 음원이 담겨있다. 원문인 “My Jubilee ist Unverhemmet”는 독일어와 영어가 섞여 있는 자유로운 백남준의 언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2022년 백남준의 탄생 90주년을 맞이하여, 백남준이 사용한 ‘쥬빌리(Jubilee)’를 단순한 기쁨의 뜻을 넘어 ‘축제’로, ‘운베르헤메트(Unverhemmet)’는 ‘한계가 없다, 거칠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9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백남준을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

어라”라고 선언했던 끝없는 긍정의 모습으로 기억하고자 한다. 거칠 것 없는 백남준의 축제는 연극, 실험음악, 퍼포먼스를 비롯하여, 비디오 월, 멀티 비디오 프로젝션, 레이저 설치 등과 같이 무한히 확장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으로 표상된다. 2022년 백남준아트센터 전시는 《바로크 레이저》(1994) 전시에 대한 오마주를 포함하여 <삼원소: 원, 삼각형, 사각형>(1997-2000), <시스틴 성당>(1993)과 같은 환상적이고 신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대형 작업들을 통해 한계가 없었던 백남준의 예술적 도전과 즐거움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2022년 주요 전시 소개

□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



전 시 명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
전시기간	2022. 3. 3.(목) ~ 9. 18.(일)
전시장소	백남준아트센터 1층 제1전시실
전시부문	미디어, 영상
참여작가	백남준
큐레이터	이수영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 백남준, <칭기즈 칸의 복권>, 1993, 로봇-비디오, CRT TV 모니터 1대, 철제 TV 케이스 10대, 네온관, 자전거, 잠수 헬멧, 주유기, 플라스틱관, 망토, 밧줄,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217×110×211cm,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에스테이트

2022년 첫 번째 전시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는 백남준의 2000년대 대표작인 레이저 작품을 시작으로, 그의 대표작을 시간의 역순으로 보여준다. 영화의 플래시백 기법처럼 백남준의 예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 가지 순간을 되짚어가며, 백남준의 예술성의 근원인 아방가르드에 접근하고자 한다. 2000년 구겐하임 회고전 《백남준의 세계》에 출품되었던 <삼원소>와 1997년 미국 순회전 《전자초고속도로》 출품작 <루트 66 BBS>(한국민속촌 소장),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출품작 <칭기즈 칸의 복권> 등이 전시된다.

백남준은 아방가르드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자신의 유전자로부터 유래한 것, 즉 자신의 본래 성격에 아로새겨진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항상 새로운 예술로 잡아끄는 근원적 이유였음을 고백한 적이 있다. 이 전시는 백남준이 자신의 예술적 근원을 발굴해내는 과정을 ‘아방가르드의 고고학’이라 명명하고, 백남준 작가의 시작점을 추적한다.

□ 《완벽한 최후의 1초》



전시명	완벽한 최후의 1초 - 백남준 교향곡 제2번
전시기간	2022. 3. 24.(목) ~ 6. 19.(일)
전시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제2전시실
전시부문	설치, 오브제, 사운드
참여작가	사운드 중심의 국내 동시대 예술가 다수
큐레이터	한누리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 필름 WDR 《한국과의 만남》 콘서트에서의 백남준, 1980, 백남준아트센터 클라우스 바리시 아카이브 컬렉션. ©클라우스 바리시

《완벽한 최후의 1초》는 백남준 작가의 예술적 시원이 되는 1961년 작품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을 국내 최초로 시연하는 전시이다.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은 백남준의 두 번째 교향곡으로 백남준 살아생전에 연주되지 못했지만, 1963년 그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과 1987년 위성방송 〈바이바이 키플링〉의 시나리오를 예고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완벽한 최후의 1초》는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에 대한 오마주로 국내 동시대 예술가들을 연주자로 초청하여 전시의 형태로 선보인다. 백남준이 이 작품을 통해 초대하는 또 한 명의 연주자는 바로 청중, 즉 전시의 관객이다. 백남준은 관객들이 악장을 넘기듯 방을 활보하며, 연주자이자 동시에 청중이 되어 이 곡을 완성해 가는 장면을 상상했다.

《완벽한 최후의 1초》는 백남준의 글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에 대해」(1961)에서 따온 것으로, “상대적인 것이 바로 절대적”이라는 백남준의 생각을 따라 관객들에게 예술이 안겨주는 절대적 자유를 선사한다. 그리고 그 자유 위에서 마주하게 될 ‘완벽한 최후의 1초’는 우리가 각자 느끼는 생생한 감각에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 《아날로그 이머시브》



▲ 백남준, 〈시스틴 성당〉, 1993, 베니스비엔날레 촬영기록 스틸 이미지, 백남준아트센터 이정성 아카이브 컬렉션.

《아날로그 이머시브》는 스크린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과 환경으로 확장되는 백남준의 대형 미디어 작업들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적 도전이 지니는 한계 없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아날로그 이머시브’가 의미하는 바는 백남준이 1990년대 사용했던 삼관식 프로젝터와 같은 아날로그

전 시 명	아날로그 이머시브
전시기간	2022. 7. 20.(수) ~ 10. 30.(일)
전시장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제2전시실
전시부문	미디어, 영상
참여작가	백남준
큐레이터	이수영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기계 장치들을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몰입형 미디어 환경을 의미한다. 백남준은 음극관 벽지, TV 벽, 무드 TV 등 인간이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회복하는 아이디어를 1960년대부터 제시하여, 미디어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했다. 《아날로그 이머시브》는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가상적이고 납작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몰입 이미지가 아니라, 아날로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감성적이고도 거친 화면을 통해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 전시에는 〈촛불 하나〉(1989, MMK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소장)를 비롯하여, 백남준이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설치했던 대규모 프로젝션 작품인 〈시스틴 성당〉(1993, 울산 시립미술관 소장), 비디오 프로젝션과 레이저가 혼합되어 있는 《바로크 레이저》(1994)를 새롭게 해석하는 오마주 설치 등을 통해 시공간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백남준의 예술적 도전을 보여주고자 한다.

□ 백남준 탄생 90주년 페스티벌



▲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전시에서 《하늘을 나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백남준과 샬럿 무어먼, 1982, 백남준아트센터 폴 게린 아카이브 컬렉션. ©폴 게린

행사명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행사기간	2022. 7. 20.(수) ~ 8. 20.(토)
행사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일대
행사부문	연극, 실험음악, 퍼포먼스, 관객 참여 이벤트 등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는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 공간에서 연극, 실험음악, 퍼포먼스, 관객 참여형 이벤트 등이 펼쳐지는 축제 프로그램이다. 먼저 <여기, 있다>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1인극으로, 연극배우 황석정이 출연하여 백남준의 예술적 동지였던 첼리스트 샬럿 무어먼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백남준의 실험정신을 오늘날 MZ세대의 시선으로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실험음악과 인디밴드의 공연, 퍼포먼스 등이 백남준아트센터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커뮤니티에 기반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백남준의 예술적 모험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관객과 소통할 것이다.

□ 백남준아트센터 국내외 협업

지난 2021년 백남준아트센터는 여러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연구와 전시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가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스위스 정부, 독일문화원, 네덜란드 대사관, 리투아니아문화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시와 심포지엄 개최, 연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아르코미술관, 아트선재센터와 함께한 <다정한 이웃>은,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미술관의 대안적 활동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험한 온라인 기반 프로젝트로 텔레톤 포맷의 방송 공동 제작, 각 기관의 영상 자원 공유, 의견을 나누는 텍스트와 오디오 생성으로 이뤄졌다. 2022년 백남준아트센터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중 서울에서 백남준전 개최를 추진 중이다. 또한 백남준의 동료이자 실험영화 감독이었던 요나스 메카스(Jonas Mekas) 탄생 100주년 및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리투아니아 문화원과 협력하여 준비 중이다.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스틸 이미지 ©2022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공개하는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를 웹 환경에서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백남준의 싱글채널 비디오와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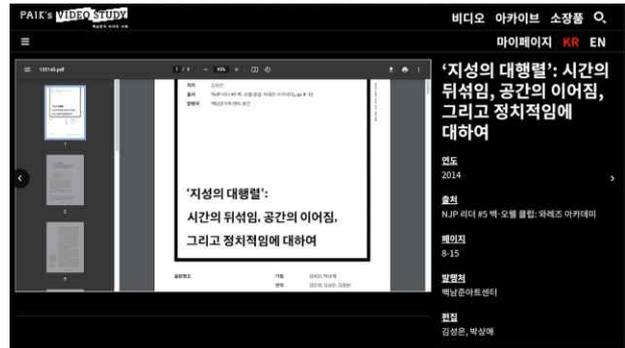
제 목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Paik's Video Study
공개날짜	2022. 1. 29.(토) 0시
웹사이트	njpvideo.ggcf.kr
주요기능	백남준 비디오 스트리밍, 연구 자료 제공 등
담당자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학예운영실장/ 아키비스트)

방송 클립, 퍼포먼스와 전시의 기록 영상, 비디오 조각과 설치의 소스, 그리고 지난 10여 년 간 백남준아트센터가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대해 수행한 연구 성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웹으로 접속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백남준의 비디오를 볼 수 있고, 이어보기와 나의 비디오 기능을 통해 자신만의 비디오 목록을 저장할 수 있다.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를 통해 비디오 아카이브를 탐험하는 것은 다양한 관심사와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찬 백남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접근할 수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미술관의 공공자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작가 백남준의 예술적 사유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백남준의 추모 16주기에 맞추어 1월 29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식 시작한다.



▲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중 비디오 페이지
 ©2022 백남준아트센터



▲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중 연구 상세보기 페이지
 ©2022 백남준아트센터

[첨부] 2022년 전시 일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								하반기 백남준전		
		《완벽한 최후의 1초》				《아날로그 이머시브》					하반기 기획전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전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1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	3월 3일(목) - 9월 18일(일)	1층 제1전시실
2	《완벽한 최후의 1초》	3월 24일(목) - 6월 19일(일)	2층 제2전시실
3	《아날로그 이머시브》	7월 20일(수) - 10월 30일(일)	2층 제2전시실
4	하반기 백남준전	10월 13일(목) - '23년 2월 5일(일)	1층 제1전시실
5	하반기 기획전	11월 24일(목) - '23년 3월 5일(일)	2층 제2전시실
6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전	11월 개최	서울시립미술관

* 전시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미지 캡션



01. 마크 패츠펠, 〈Chicken II 02〉에 사인하는 백남준, 1987

* 상세 : 마크 패츠펠, 〈Chicken II 02〉에 사인하는 백남준, 1987, 종이에 흑백 프린트, 19x25cm, 백남준아트센터 마크 패츠펠 아카이브 컬렉션.



02. 백남준, 〈칭기즈 칸의 복권〉, 1993

* 상세 : 백남준, 〈칭기즈 칸의 복권〉, 1993
 로봇·비디오, CRT TV 모니터 1대, 철제 TV 케이스 10대, 네온관, 자전거, 잠수 헬멧, 주유기, 플라스틱관, 망토, 밧줄,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217×110×211cm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에스테이트



03. 백남준, 《한국과의 만남》, 1980

* 상세 :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전시에서 〈하늘을 나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백남준과 샬럿 무어먼, 1982, 백남준아트센터 클라우스 바리시 아카이브 컬렉션.
 ©클라우스 바리시



04. 백남준, 〈시스티나 성당〉, 1993

* 상세 : 백남준, 〈시스티나 성당〉, 1993,
 베니스비엔날레 촬영기록 스틸 이미지,
 백남준아트센터 이정성 아카이브 컬렉션.



05. 백남준과 샬럿 무어먼, 1982

* 상세 :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전시에서 〈하늘을 나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백남준과 샬럿 무어먼, 1982, 백남준아트센터 폴 게린 아카이브 컬렉션. ©폴 게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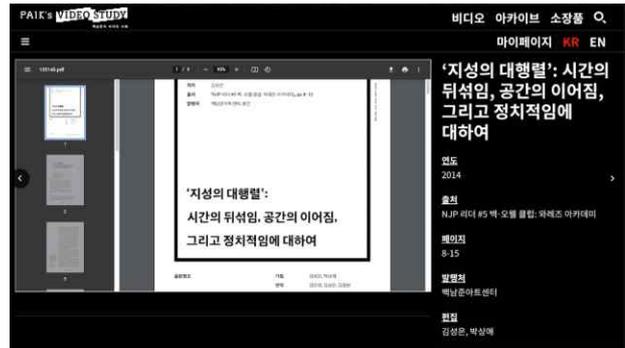
06.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 상세 :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스틸 이미지 ©2022 백남준아트센터



07.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비디오 페이지

* 상세 :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중 비디오 페이지
 ©2022 백남준아트센터



08.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연구 상세보기

*상세 :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중 연구 상세보기 페이지
 ©2022 백남준아트센터